

배포 일시	2022. 12. 22.(목)		
담당 부서 <총괄>	국토정보정책관	책임자	과 장 오성익 (044-201-3469)
	공간정보진흥과	담당자	사무관 안종태 (044-201-3471)
보도일시	2022년 12월 23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 22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“뉴 스페이스 시대, 청소년이 띄우는 국토위성”

- 23일부터 국토발전전시관서 국토위성 모형 전시·위성영상 사진전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12월 23일부터 한 달 동안 국토발전전시관(서울 정동)에서 국토위성 1호가 촬영한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과 국내 우주산업기술의 현황을 청소년 등 국민이 공감하는 「뉴스페이스 시대, 청소년이 띄우는 국토위성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.

○ 이번 국토위성영상 사진전은 그간 국토위성 1호*가 촬영한 주요 국내·외 지역 총 20점의 작품과 국토위성과 동일하게 제작된 모형이 상설 전시(09:30~17:30, 매주 월요일 휴관)되며, 별도 신청 없이 자유 관람이 가능하다.

* 국토위성 1호는 2021년 3월 22일 발사에 성공하였으며, 국내 최초의 고해상도 국토위성영상을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에서 온·오프라인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, 온라인 서비스는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(map.ngii.go.kr)을 통해서 위성정사영상을 직접 내려받기 가능

□ 사진전의 작품들은 우리의 독도와 백두산, 금강산 등 북한지역, 네움신도시 건설현장, 터키 차나칼레 대교(세계 최장 현수교) 등 세계 주요 랜드마크를 고도 약 500km에서 국토위성이 촬영한 50cm급 고해상도 위성영상이다.

- 특히, 미래 꿈나무들이 항공우주를 향한 꿈과 희망을 키우고 있는 청소년들과 우리나라 인공위성 발사체인 누리호에 탑재한 초소형 큐브위성을 개발한 대학생들이 함께 참여하여 인공위성 개발 등 국내 우주산업과 뉴스페이스에 대하여 의견을 공유하게 된다.
- 또한, 사진전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국토위성을 운영하고 있는 국토부 산하 국토위성센터 박수영 연구관이 국내외 위성 개발 경쟁, 국토위성 2호 발사 및 위성영상의 융·복합 활용 등 “국민과 함께 여는 우주위성 시대”라는 주제로 우주산업에 대한 강연과 더불어 항공우주 관련 종이접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.
- 그리고 내년도에 국내외 다양한 주요 지역 및 랜드마크 등에 대한 온라인 국토위성 사진전을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인 브이월드에서 볼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구축하여 서비스 할 계획이다.

* (브이월드) 3차원 공간정보, 지적도 등 국가가 보유한 다양한 공간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(<https://www.vworld.kr/>)

□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“우리나라가 공간정보 강국,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인재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하면서, 이번 사진전이 뉴스페이스 시대를 대한민국이 주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진흥과	책임자	과 장 오성익 (044-201-3469)
		담당자	사무관 안종태 (044-201-3471)
<국토위성 운영기관>	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	책임자	센터장 이호형 (031-210-2790)
		담당자	연구관 이상오 (031-210-2792)
<행사운영 기관>	공간정보산업진흥원 대외협력실	책임자	본부장 고영진 (031-606-2532)
		담당자	실 장 강경인 (031-606-2535)

